

아동학대로 분노 유발 욕먹을 각오하고 악독한 계모 역할 충실

영화 '어린 의뢰인' 유선

나도 딸 키우는 엄마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보면
안타까움이 커요

"이번에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실제 저런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연기하려고 했어요."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계모 역할을 맡은 배우 유선(43)은 "성격과 너무 다른 역할을 연기하려니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세련되고 선한 이미지의 배우 유선은 악독한 계모 지수로 변신해 관객의 분노를 끌어낸다.

7일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유선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항상 촬영장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컷 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후에 고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위로와 동정을 구하는 것 같아서 혼자 진정하려고 했죠. 돌 던지고 싶은 만큼의 분노를 일으키는 인물로 표현해야만 영화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았어요. 그런 책임감이 부담됐죠."

그는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출연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무관심한 어른들, 법의 허술함, 아동복지사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한계 등을 모두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정영(이동휘 분)이 아이들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은 밝고 따뜻하게 그려지고요. 반가운 마음에 출연하기로 했죠. 제가 해야 할 역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웃음)"

유선도 "이해되지도 않는 지수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감독님은 용서받지 못할 인물이나 '행동의 이유조차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지수를 이해해야 했어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인물인데, 이 장애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지수를 엄마의 존재를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엄마의 역할을 기능적으로만 하는 인물로 생각했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어른들이 만들어낸 괴물이구나' 싶었죠."

역할과는 정반대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유선은 아동 학대법에 대해서는 "정상이 아니다. 자기감정에만 집중하고 상대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동학대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외국은 아동학대에 관해 유난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유난히 허술한 것 같아요.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처벌이 매우 강해져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것 같습니다. '어린 의뢰인'을 통해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외면하지 말고 어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유선은 여섯살 난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초보 부모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했거든요. 처음



3년 동안은 아낌없이 사랑해주기로 하고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로 아이가 밖에서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인 게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요."

현재 그는 KBS 2TV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서 가사와 육아, 직장 일까지 하는 워킹맘을 연기하고 있다.

그는 "저도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영화 '진밤'과 '귀수' 개봉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남자의 전유물 같은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또 제가 코미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코미디도 해보고 싶고, 깊이 있는 멜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연습뉴스

박효신 신곡 '굿바이' 8개 음원차트 1위 석권

가수 박효신(38)의 신곡 '굿바이'(Goodbye)가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공개된 '굿바이'는 발매와 함께 멜론, 지니뮤직, 엠넷, 벅스,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소리바다, 몽키3 등 8개 차트 1위를 석권했다.

박효신은 한동안 음원차트 최상위권을 지키던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와 밴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트와이스의 '팬시'(FANCY)를 밀어내고 음원 강자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굿바이'는 정규 8집 곡 중 하나로, 박효신과 정재일이 공동 작곡하고 박효신과 작사가 김이나가 함께 가사를 썼다. 노랫말에는 과거와의 애뜻하지만 필연적인 작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박효신은 "그동안 이야기한 관계와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필연적인 요소인 '이



별'을 단절이 아닌 '놓아줌'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풀어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6월 29-30일, 7월 5-7·11-13일 약 3주간 총 6회에 걸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라이브 2019 러버스: 웨어 이즈 유어 러브?'(LIVE 2019 LOVERS: where is your love?) 공연을 펼친다.

연습뉴스

tvN '어비스'·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시청률 3%대 출발

tvN과 SBS TV가 동시에 새로운 월화극을 내놨지만 침체기에 빠진 월화극 시장에 큰 판도 변화는 없었다.

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한 tvN '어비스' 첫회는 3.9%(유료가구), SBS TV '초면에 사랑합니다' 첫회는 3.2%-3.6%를 기록했다.

SBS TV '해치'가 종영한 후 월화극 1위 자리를 MBC TV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6.7%-7.7%로 가져갔으며, KBS 2 TV '국민 여러분!'이 4.5%-6.2%로 뒤를 이었지만 KBS 1TV '가요무대'(11.0%)를 넘는 작품은 없었다.

'어비스'는 2017년 JTBC '힘센여자 도봉순'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준 박보영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화제가 됐다.

원복한 미모의 여검사 고세연(김사랑→박보영 분), 못생긴 재벌 2세 차민(안세하

→안효섭)이 각각 의문의 살인사건과 교통사고 이후 부활해 흔한 여자와 멋진 남자가 된다는 판타지 소재도 젊은 시청자 눈을 끌었다.

그러나 첫 회 이후에는 판타지극임을 고려하더라도 전개와 연출방식이 유지하는 했지만 이후 불의의 사고로 안면인식 장애가 생겨 경찰회관 알아보게 된 도민익의 모습이 그려졌다.

안면인식 장애 소재 자체가 과거 여러 작품에서 다뤄진 데다, 큰 차별점이 없다는 평이 많았지만 편하게 볼 만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연습뉴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⑧	25 어버이날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스캔들
⑨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9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봉경기 <애들랜더:LA다저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실컷 나는 오늘
⑪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⑫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⑬	00 어버이 살아실 제 (어머니 어머니)(재) 55 다큐 공감(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⑭	45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⑮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⑯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침착한 주말 X 마리텔 V2 55 이몽(재)	00 SBS 스페셜(재)
⑰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⑱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⑲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55 SBS 8 뉴스
⑳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㉑	00 KBS 뉴스9			
㉒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재중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녹두꽃 감독판 1~8회 감독판-사람, 하늘이 되다
㉓	35 UHD 스포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가정의 달 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㉔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 타요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15 꼬마하어로 슈퍼잭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들개 소리극과 오이고추 조림>	19:5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미래교육 플러스(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책과 팜(재)	14: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불케이노 어드벤처, 아시아 화산섬 기행 화산, 태평양을 품다, 피나투보>
08:45 랄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나의 정원으로 오라 3부 오지의 산골 꽃밭>
09:30 몰랑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15 출동! 슈퍼왕스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23:5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두루말이조림과 감자채전>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을 살펴보자. 48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60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2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84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치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37, 17</p>	<p>午 42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54년생 가능성이 약하니 기대는 하지 말라. 66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 보면 고인 일도 풀리리라. 78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90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27</p>
<p>丑 37년생 호기심의 감정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49년생 행하다보면 योग이 생기게 되어 있다. 61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73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85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1, 94</p>	<p>未 43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5년생 속명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하라. 67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된다. 79년생 천명은 하늘에 있나니,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91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99, 96</p>
<p>寅 38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50년생 누워서 침 뱉기에 비유할 만하다. 62년생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봐라. 74년생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86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6, 87</p>	<p>申 44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56년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68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80년생 타격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92년생 가끔씩 빨리 시작해야만 끝낼 수 있는 바탕이다. 행운의 숫자 : 88, 07</p>
<p>卯 39년생 높은 산에 올라 간 격이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51년생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63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절실하다. 75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87년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라. 행운의 숫자 : 34, 47</p>	<p>酉 45년생 필요로 한다면 실제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 57년생 서막에 이르러마자 즉시 가닥이 잡히리라. 69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81년생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겠다. 93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행운의 숫자 : 82, 57</p>
<p>辰 40년생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52년생 훨씬 매끄러울 것이다. 64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76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하고만 있으면 성과를 거두리라. 88년생 믿었던 바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60, 78</p>	<p>戌 34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46년생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58년생 큰일 나는 수가 있다. 70년생 새로운 타계책을 찾지 않으면 답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82년생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4, 45</p>
<p>巳 41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53년생 기조가 튼튼하다면 의욕 하던 대로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면모이다. 65년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77년생 핵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걸들다가 하루가 된다. 89년생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61, 92</p>	<p>亥 35년생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47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울 때이다. 59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71년생 변수가 있겠다. 83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1, 90</p>